

포천 양돈협업단지 준공

영세규모 10개 농가 참여, 연간 자돈 7천두 생산계획

취재 : 이상길 기자

영세규모 양돈농가들의 경영상 불리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양돈협업단지가 경기도 포천에 탄생했다.

포천군 농촌지도소(소장 : 이형두)는 지난 8월 14일 오전 11시, 서정선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홍인화 포천군수 등 관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군 양돈협업단지 자돈생산농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73번지에 위치한 이 단지는 자돈만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10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돈사규모는 분만자돈사(2백18평) 1동과 스톨 및 종모돈사(2백4평) 1동으로 총 2동 4백18평 규모이고, 부지면적은 2천평이며, 모돈 3백두를 수용, 현재 10개 참여농가 합쳐서 1천4백20두인 자돈생산을 연간 7천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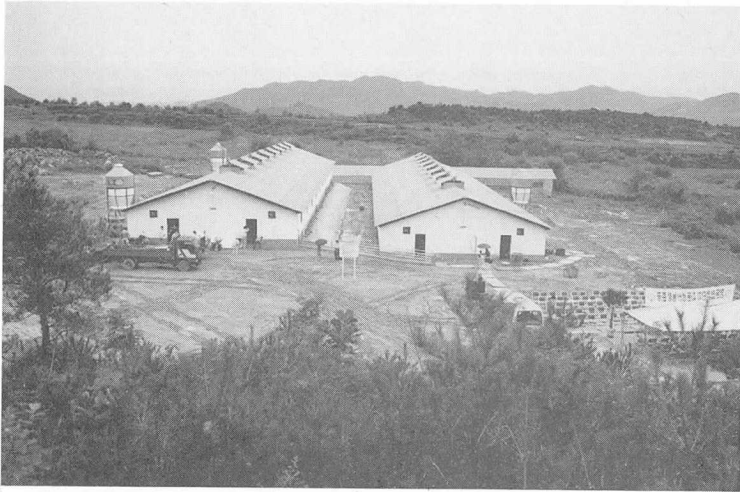


협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자금은 총 3억원으로 이중 1억2천만원은 도 및 군예산으로 보조받았으며 1억8천만원은 양돈단지를 구성하는 10개 농가가 공동투자하여 조성했다.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간을 1차 사업기간으로 하는 이 단지는 지난 4월 20일에 착공, 1백10여일만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단지는 특히 급이기, 급수기, 스크레퍼, 환풍기 등 자

동화시설을 도입, 「한국형 토탈돈사시스템」으로 시공, 성력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시도했다.

협업단지조성의 실무를 담당하는 포천군 농촌지도소 축산계장 박종업씨는 협업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자돈생산농장이 가동되면 인근 일반양돈농가에서 보통 두당 3만5천5백원씩 소요되는 자돈 생산비를 두당 2만5천4백원으로 절감할



수 있고, 모든 10두에 비육돈 1백두를 기준, 일일 2.0시간의 노동시간을 일일 1.39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90kg기준 11만9백원의 생산비를 9만9천원으로 10.2%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협업단지의 연간 소득은 3억1천5백만원으로, 참여농가 호당 연간 3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군 양돈협업단지 자돈생산농장은 이 지역의 소규모 양돈농가(모든 20두~30두규모)들을 중심으로 조성됐는데, 단지조성의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개별 경영으로는 양돈수익성의 지표인 기술축적과 종돈개량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업단지회장 김승진씨(46세)는 『지금까지 지역단위로 서울의 축협공판장에 출하를 해봤지만, 이 지역 농가들의 돼

지는 상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평균가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협업단지 운영으로 종돈개량 및 기술축적을 촉진, 참여농가는 물론 지역양돈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사료구입, 자재구입,약품구입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지향,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 잉여금을 협업단지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협업단지의 돼지는 중원종축으로부터 40일령짜리 F₁모돈 2백80두를 도입, 110kg까지 육성한 후에 종부토록 하여 자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자돈들은 3원교잡종으로 3만원선에 협업단지 회원들에게 분양하여 각자 자기의 농장에서 사육, 이들 중 70%는 제일제당에 납품하고, 나머지 30%는 우성이나 축협공판장에 출하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단지건설과정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등 걸림돌은 없었으며, 부지매입문제도 협업단지 회원중 한명의 토지를 5년계약으로 임대, 해결할 수 있었다. 농장은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사표준설계도가 나오지 않아 시공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한다.

농장의 설비를 보면, 분만틀이 자돈의 압사를 방지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었고, 니뿔은 돼지가 건드려야 물이 공급되도록 하여 폐수를 적게 발생시킨다는 점이 특이하다.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축산시험장의 자문을 얻어 80평 정도의 돈분처리장(썬드라이 방식)을 설치했으며, 특히 돼지의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 분뇨수거통로에 기울기를 주어 스크래퍼가 돈분을 긁어서 돈분처리장으로 보내고,뇨는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도록 하여 3단계정화시설로 옮겨주도록 했다. 이곳은 자돈생산농장이므로 분뇨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한편, 이곳의 관리는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하에 협업단지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며, 농장장 1명을 두어 관리케 할 계획이다. 